

# '익산 나눔공간' 큰 호응

### 시민·단체 자발적 기부로 운영... 1일 평균 100여명 방문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익산 나눔공간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나눔공간 개장 이후 하루 평균 100여명이 방문하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내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나눔공간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개장해 민관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후원 물품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시민이다. 직접 공간에 방문하면 1회에 한해 5만원 상당의 물

품을 무상으로 선택해 받아 갈 수 있다.

이곳은 시민,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물품 또는 후원금을 받아 채워지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식품,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금품을 기부했을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영수증을 발급되며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생계가 곤란해 물품이 필요한 위기 가구 또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부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언제든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854-1377)에 연락하면 된다.

'익산나눔공간'은 식품과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물품을 생

활이 어려운 사람과 위기가구에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간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와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복지 밖에 있는 시민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갖추어 코로나19 위기가구의 경제적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위해 나눔공간 운영을 시작했고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나눔공간이 지속적으로 나눔 대포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 '꼬꼬마양배추' 연중 생산 추진

###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 3기작 재배 연구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비대체 신소득작물로 재배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꼬꼬마양배추를 소비자 식탁에 연중 공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3기작 재배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 꼬꼬마양배추는 재배기간이 짧은 조생종으로 봄과 가을 2회 재배가 가능해 농가소득향상에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장기간이 짧아 언제라도 신선한 상태에서 구입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연중 지속적으 신선한 꼬꼬마양배추를 재배해 국내의 공급량을 확대하고 재배면적도 2020년 31ha에서 50ha까지 대폭 늘리면서 연간 3차례 수확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3기작 재배 작형 개발에 나섰다.

당초 재배 작형은 4월 초에 정식해 6월 수확, 8월 말에 정식해 10월 말에 수확하는 2기작 재배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봄재배를 10일 앞당겨서 3월 말에 정식해 5월 말에 수확하고 가을재배는 한 달가량 늦춘 9월 하순에 정식해 12월에 수확하도록



재배기간을 조정했다.

또한 기존 재배작형 외에 하절기 8월에서 9월 사이 출하를 위해 6월과 7월에 정식해 8월과 9월에 수확하는 작형을 추가, 연간 2회 재배에서 3회 재배하는 기술 보급으로 부족했던 꼬꼬마양배추 물량 확보는 물론 연중 출하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금년에는 꼬꼬마양배추 가공품인 김치, 즙, 죽, 음료 등을 비롯한 가공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2023년까지 꼬꼬마양배추즙 가공원료 1,02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꼬꼬마양배추김치는 일본 현지 식미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고병만 기자



24일 익산시와 기독교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 익산시·기독교연합회 코로나19 방역 강화

### 24일 방역 협의체 회의 개최

익산시와 기독교연합회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책임성 있는 자율 방역 상황을 점검하며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24일 익산시와 기독교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협의체 회의를 열고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잇따라 종교계 수도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자체 점검강화와 소규모 대면 예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비상시적 방역 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독교연합회는 성가대 연습과 활동에 따른 위험성과 일부 소규모 교회의 식사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각 교당에 전파해 자율적 방역의 책임 있는 모습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시기독교연합회 관계자는 "익산시와 기독교연합회의 성공적인 방역 활동이 모범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코로나 시대에 떨어진 관계를 잇다'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서 카벨루 팀 '잇다' 단체전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3월 28일까지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1층)에서 현대미술 작가들의 모임인 카벨루 팀의 단체전 '잇다'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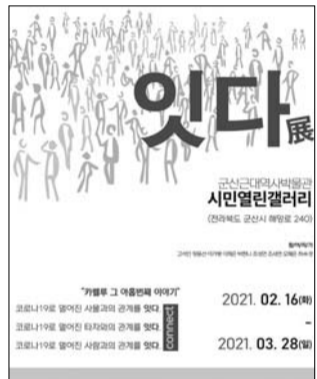
카벨루 팀은 군산대학교 예술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대미술 작가9인의 모임으로 지난 2015년 최초의 단체전인 '다라방' 전시를 시작으로 강릉과 보령, 전주, 군산 등지에서 총 8회의 전시를 개최했다.

카벨루 회원이자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기영 아트공간 대표는 "이번 '잇다'전은 '코로나19로 떨어진 사물·타자·사람과의 관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와 거리두기로 인해 변화

하는 사회를 이어주기 위한 작가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전시 작품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세상의 일상이 다시 이어질지 바란다는 뜻을 담은 '멈춤(Stop)'을 비롯한 9점의 현대미술 작품으로, 회화와 영상작품, 혼합매체를 이용한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시 관계자는 "카벨루 팀에서 자체 제작한 전시 동영상을 2월중 박물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도 공개하여, 전시관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잇다'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카벨루의 '잇다' 전시를 시작으로 군산의 우수한 문화예술 경쟁력을 홍보하고 시민작가들의 예



술활동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전시를 온라인에 병행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 익산, 의료·방역 인력 '돌봄 지원' 확대

### 3월 2일부터 우선 지원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 필수 인력이 자녀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방역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한시적으

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확대 대상은 전담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 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필수 보건직으로 인력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이다.

해당 대상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 비율을 기존 15~80%에서 60~90%로 확대한다. 적용 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며 연간 정부 지원시간인 840시간에서 차감을 면제한다.

특별지원 희망자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전 발급받아야 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코로나19 의료 및 방역인력'란을 체크해야 한다. 추후 근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 지역 소식통

### 익산, 특별방역 점검 시행

익산시가 신항과 이동량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 점검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신동, 영등동, 모현동 등 이용객이 많은 변화가와 유명 맛집을 중심으로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5인 이상 동반 입장과 모임 금지, 테이블간 거리두기, 업소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등이다.

특히 유흥단지주점의 경우 22시 이후 영업 금지 이행 여부와 춤추기 금지(댄스홀, 댄스플로어 등 운영 금지) 등의 기타 방역지침을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 위반 시설은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아웃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 군산, 3월2일부터모집

군산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2021년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학습자 강좌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하는 강좌 수는 460개 강좌이며, 접수 방법은 5인 이상 중 학습자 대표가 원하는 장소, 시간대, 강좌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 대비 및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방문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전환했다.

시는 지난 2월 15일부터 동네문화카페 참여할 강사와 사업주로부터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온라인 등록을 받아 22일까지 강좌 41명, 사업주는 224명 등록 받았으며, 현재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동네문화카페에 게시했다.

학습자는 5인 이상의 성원을 갖춰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홈페이지 동네문화카페 참여 등록된 강사와 사업주의 정보를 참고하고, 학습장(사업주)와 협의하여 원하는 장소로 신청하면 된다. 강좌 모집이 완료되면 시에서 배정 기준에 따라 강좌 여건에 맞는 강사를 임의 배정하게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